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6, No. 3, pp.211-216, August 31, 2020.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http://dx.doi.org/10.17703/JCCT.2020.6.3.211
JCCT 2020-8-25

초등학생 자녀를 둔 취업모와 전업모의 양육불안

Parenting anxiety about working mother and full-time mother, with elementary school children

이재희, 박지희

Lee Jae-Hee*, Park Ji-Hee**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취업모와 전업모의 양육불안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지원할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참여자는 모두 초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 20명이었다. 자료수집은 2017년 6월 23일부터 2017년 7월 8일까지 이루어졌다. 집단심층면담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취업모가 느끼는 양육불안은 '아이에 대한 미안함', '학부모 역할에 대한 부담감', '돌봄에 대한 어려움'으로, 전업모가 느끼는 양육불안은 '독박육아의 어려움', '남편과의 역할 분담 필요', '재취업과 경력단절의 문제'로 제시하였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모와 전업모의 초등학생 자녀에 대한 양육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 둘째, 초등학생 자녀를 둔 취업모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초등학생 자녀를 둔 전업모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주요어 : 유아, 양육불안, 취업모, 전업모, 초등학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over about the parenting anxiety of working mother and full-time mother with elementary school children, and to find ways to support them. All the study participants were 20 mothers with elementary school children. Data was collected from June 23, 2017 to July 8, 2017. Data was collected using in-depth group interviews. Parenting anxiety felt by working mothers is'sorry about the child','burden on the role of parents', and 'difficulty in caring'. ,'Reemployment and career disconnection'. The conclusion is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burden of raising children on elementary school children of both working and full-time mothers. Second, practical support plans are needed for working mothers and full-time mothers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ird, practical support plans are needed for working mothers and full-time mothers with elementary school children.

Key words : Young children, Parenting anxiety, Working mother, full-time mother, Elementary school children

*정회원,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제1저자)
**정회원, 사회정보연구원 위촉연구원 (교신저자)
***본 논문은 이재희·김근진·엄지원(2018)이 수행한 육아정책연구소 기본연구 초등자녀 양육지원 방안 연구의 학부모 대상 심층면담 원자료를 재분석하여 작성함.
접수일: 2020년 06월 28일, 수정완료일: 2020년 07월 24일
게재확정일:2020년 08월 14일

Received: June 28, 2020/ Revised: July 24, 2020
Accepted: August 14, 2020
*Corresponding Author: bakjihee@hanmail.net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Social Information Research Institute.

Ⅰ. 서론

양육불안(parenting anxiety)는 양육(parenting)과 불안(anxiety)가 합쳐진 용어로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 행동에 미치는 양육자의 마음 상태 중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하는 불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1]. 양육불안은 어떤 특정한 양육의 상황으로 인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기에 불안함을 느끼는 상태로, 부모 요인, 배우자 요인, 자녀 요인, 사회 전반적인 요인들이 작용하여 개인의 불안함을 배가시킨다[2]. 일상적인 양육환경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 놓였을 때, 부모는 양육불안을 느끼기 쉽다. 자녀가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적응하는 상황은 부모가 양육불안을 경험하기 쉬운 환경이다. 양육불안이 강하게 나타나는 어머니는 자녀에게 충분한 애정을 주지 못하고 통제적인 방식으로 양육하는 모습이 나타난다[3].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가정에서의 역할 수행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4]. 변화한 양육 환경에 따라가지 못하고 여전히 여성에게 양육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지금의 현상으로 인해 오늘날 어머니들의 양육불안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어머니들은 생애 처음 경험하는 부모로서의 역할과 양육에 대한 의무감으로 인해 양육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동시에 자녀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나타내는 모순적인 상황이 나타난다[7]. 이는 어머니들이 양육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부모가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직장재직여부에 따라 취업모와 전업모로 구분할 수 있다. 취업모와 전업모의 양육환경을 서로 다르며, 느끼고 있는 양육불안도 조금 다르다. 취업모는 자녀와 함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의 부족함에 죄책감을 느끼고, 전업모는 하루 종일 자녀와 함께 있지만 질적으로 훌륭한 양육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미안함을 느끼고 있다[9].

취업모들은 일-가족 양립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일-가족 양립의 어려움은 취업모들의 양육불안으로 연결된다. 취업모들은 직장과 가정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맡아 충돌하는 일-가족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데, 취업모들이 직장과 가정에서의 서로 다른 역할이 충돌하면서 과도한 직무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5]. 취업모들은 자녀와 함께 하는 절대적인 시간의 부족함으로 인해 자녀에게 이상적인 어머니 역할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항상 느끼고 있다[8]. 취업모들은 자녀가 어릴수록 스트레스, 역할 갈등을 경험하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6]. 취업모들은 정보의 부재로 인해 양육에 어려움도 갖고 있었다. 이처럼 취업모들이 느끼고 있는 양육의 어려움은 그대로 취업모들의 양육불안으로 연결된다.

전업모들은 결혼, 임신 출산 및 육아로 인해 본인이 원치 않는 전업주부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업모에 대해 집에서 놀면서 아이돌보는 것도 싫어하는 인식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7]. 전업모들은 반복적인 일상에서 행하고 있는 어머니 역할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쉽게 찾아내지 못하고, 자녀양육으로 인한 좌절감, 스트레스, 우울감을 느끼고 끊임없는 가사노동에 힘들어 하고 있다[9]. 전업모들이 자녀와 보내는 시간은 많지만 질높은 양육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죄책감은 양육불안으로 이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취업모와 전업모의 양육불안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지원할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초등학생 자녀를 둔 취업모의 양육불안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초등학생 자녀를 둔 전업모의 양육불안은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연구참여자는 모두 초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 20명이었다. 구체적으로 서울, 경기, 인천, 강원지역의 취업모 9명, 전업모 11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2. 자료수집 및 연구절차

자료수집은 2017년 6월 23일부터 2017년 7월 8일까지 이루어졌다.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지역의 취업모와 전업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집단심층면담(FGI)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먼저, 피면담자들에게 면담의 내용과 목적을 설명하고 구조적인 질문의 예시에 대해 설명하였다. 피면담자들간의 동질성을 확보한 이후

에 집단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집단심층면담은 한 번에 2~5명의 취업모와 전업모가 참여하였고,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어 포화될 때까지 진행하였다. 집단심층면담은 면담자들을 대상으로 1회씩 실시되었으며 총 8회 수행되었다.

3. 자료분석

면담을 모두 전사하였다. 먼저, 취업모와 전업모의 사례를 각각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취업모와 전업모의 양육의 어려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취업모와 전업모가 느끼고 있는 양육불안에 대해 정리하였다. 취업모가 느끼는 양육불안은 '아이에 대한 미안함', '학부모 역할에 대한 부담감', '돌봄에 대한 어려움'으로, 전업모가 느끼는 양육불안은 '독박육아의 어려움', '남편과의 역할 분담 필요', '재취업과 경력 단절의 문제'로 제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취업모의 양육불안

1.1. 아이에 대한 미안함

초등학생 자녀를 둔 취업모들은 아이에 대한 미안함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특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초등학교로 적응해나가는 데 안타까움을 갖고 있었다. 취업모로서 전업모와 다른 안타까움도 있었다.

> 1학년을 잡아서 꼼짝달싹 못하니까... 학교가 행복해야 하는데.. 슬퍼하더라구요 (2017.07.08. 취업모 5번)

> 쉬는 시간 10분 동안에 편하게 쉴 수도 없고, 그냥 자기 자리 지키면서 수업만 안할 뿐이지 앉아있어야 하고. (2017.07.08. 취업모 6번)

> 상대적으로 누구 엄마는 오는데 왜 엄마는 안 와? 엄마도 오면 안 돼? 그러면 죄 지은 것도 아닌데 미안하고. 전업모끼리 친해서 이야기를 나누시면 끼기도 미안해지고 뻘줌해지는 것도 있어요.
> (2017.07.08. 취업모 8번)

초등학생 자녀를 둔 취업모들은 아이의 적응을 위해 조금 더 강하게 이야기한다고 했다. 발달 상 7살과 8살은 큰 차이가 없는데 초등학교 적응을 위해서 강한 어투로 이야기할 수 밖에 없다고 하였다. 한글이나 수학 교육도 본인의 의사와 반하더라도 시키고 있었다.

> 아이한테 스스로 무언가를 해야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유치원과) 몇 개월 차이가 나는 것 밖에 없거든요. 아이들이 못해내요. (2017.07.01. 취업모 1번)

> 우선 한글. 한글하고 너 혼자 기본생활 할 수 있게. 더 많이. 심지어 화장실에서 학교가서 변 봤을 때 뒤처리 하는 거. (2017.07.08. 취업모 7번)

> 한글이나 수학 때문에 안 시키던 학습지를 2월 달에 부랴부랴 시작했어요. 남들 다 하는 데 내 아이만 소신있게 갈 자신이 없더라구요.
> (2017.07.08. 취업모 9번)

1.2. 학부모 역할에 대한 부담감

취업모들은 직장과 부모로서의 역할을 병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본인의 노력으로 극복하고 있지만 방학때 양육지원과 같은 실질적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 제가 좀 더 일찍 일어나요. 예전보다 2시간 일찍. 아침 일찍 시작하는 것이 저도 아이도,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요. (2017.06.24 취업모 3번)

> 저출산인데 아이를 더 낳을 수 있게 돈을 주는 정책인데, 돈으로 안되는 게 있잖아요. 방학 때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요. (2017.07.01. 취업모 1번)

전업모들에 비해 취업모들은 초등학교 적응에 적극적이었다. 초등학교의 규칙에 순응하고, 친구를 만들어주고, 알림장에 신경을 써서 빠른 시간 내에 자녀를 초등학교에 적응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 유치원은 보육이고, 초등학교는 교육이죠. 수업시간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규칙이 있는데, 어쩔 수 없다

고 생각해요. (2017.07.08. 취업모 7번)

제가 생각하기에 1학년 친구는 엄마가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2017.07.08. 취업모 7번)

신경이 많이 쓰여요. 알림장에 준비물이 써 있어요. 갑자기 밤에 확인하면, 또 사러가야하고.
(2017.06.24 취업모 4번)

1.3. 취업모의 돌봄에 대한 어려움

취업모들은 전업모들에 비해 자녀에 대해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 취업모들은 직업을 그만 둘 까 고민도 하고 있었고, 전업모들과 함께 잘 지내서 아이의 적응도 도와주고 싶어하고 있었다.

차라리 집에 있는 게 편한 것 같아요. 식사가 문제이긴 한데, 냉장고에 넣어놓고. 이렇게까지 일해야 하나. 그렇게 해서 버는 건 아이들 교육비잖아요.
(2017.07.01. 취업모 2번)

반 모임에도 빠질 수 없고, 여자아이라 더 한데. 지금 여러 친구를 해줘야 하지 않을 까 싶어요. 엄마들한테 끼어야 되지 않을까. (2017.07.08. 취업모 10번)

취업모들은 전업모들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양육시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부족한 양육시간은 부족한 정보로 연결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초등학교에 어머니 봉사활동하러 가는 것도 큰 부담이라고 이야기했다.

워킹맘의 가장 힘든 점이 엄마들을 사귈 수 없고, 내가 듣는 게 없어서. (2017.06.24. 취업모 4번)

학교는 오라는 것도 하라는 것도 너무 많아요. 어린이집은 우리 아이 하는 거 보러 가는 건데, 초등학교엔 봉사하러 가는 거잖아요. (2017.07.08. 취업모 6번)

2.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전업모의 양육불안

2.1. 독박육아의 어려움

초등학생 자녀를 둔 전업모들도 양육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비해 늘어난 양육시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고,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들을 위한 특별한 도움을 줘야하지만 그게 쉽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저는 유치원 다닐 때보다 초등학교 때 같이 있는 시간이 늘었어요. 유치원은 5시까지 놀다 왔잖아요. 지금은 1시 전에 와요. 내가 더 많이 챙겨줘야 하는구나. 아이도 의존도가 높아진 것 같아요.
(2017.07.01. 전업모 11번)

저학년까지는 아무래도 좀 도와주는 게 조금 있어야지. 그냥 니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한다고 해도 못하거든요. (2017.07.08. 전업모 6번)

전업모들은 초등학생 자녀들의 적응을 도와야하는데 시간이 부족함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취업모들의 절대적인 시간 부족과 달리, 전업모들은 알림장과 숙제에 대해 도와줄 시간이 부족함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숙제시간이나 책 읽어야 할 시간에는 무조건 해야 하는 거니까. 아이 위주로 돌아가는 거 같아요.
(2017.07.08. 전업모 5번)

맨날 엄마가 알림장 확인해 주고 꼼꼼하게 살펴봐주세요. 이런 문구들이 (알림장에) 적혀있어요.
(2017.07.08. 전업모 7번)

2.2. 남편과의 역할 분담 필요

전업모들은 아이의 아빠들의 육아 참여가 저조함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무조건적으로 아빠를 양육에 참여시키기에 아빠들의 일 강도가 너무 높다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아빠는 거의 주말에만 보죠. 아빠가 늦게 오니까.
(2017.07.07. 3번 전업모)

아빠 쉬는 날에도.. 아이들이 크게 아빠 얼굴을 볼 시간이 없어요. (2017.07.07. 4번 전업모)

주말에 몰아서 놀아주는 편인데. 아빠도 쉬어야 하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잘 안 되죠.
(2017.07.11.9번 전업모)

전업모들은 유치원 때에 비해 양육이 엄마의 전담이 된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때문에, 가능하면 아빠와 양육 역할을 분담하고 싶어했다.

유치원 때 부모 참여수업도 있고, 아빠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은데, 학교에 들어오면서 약간 엄마의 전담이 되는 기분이 들었어요.
(2017.06.23. 2번 전업모)

분담해야 하는 게 늘어나죠. 여자들이 살림만 하는 시대는 간 것 같아요. 멀티가 되야 해요. 필요한 생활 분담이 늘어난 것 같아요. (2017.07.11. 8번 전업모)

2.3. 경력단절과 재취업의 어려움에 대한 문제

전업모들은 처음부터 양육을 전담하지 않았다.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가 자녀가 초등학생이 되자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다. 원치 않는 경력단절의 문제가 나타났다.

아이가 1학년이 되면서 (일을) 그만뒀어요.
(2017.06.23. 1번 전업모)

저도 3월부터 그만뒀어요.
(2017.06.23. 2번 전업모)

육아휴직이 되면 다행이잖아요. 정말 드물잖아요. 경력단절 물어보면 초 1때 많이 그만뒀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2017.07.01. 12번 전업모)

제일 큰 변화는 직장을 그만둘 수 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아프거나 제가 가야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게 원활하게 안될 것 같아서 그만 둔 케이스였어요. (2017.07.01. 10번 전업모)

직장을 가지고 있다고 경력단절이 된 전업모들은 재취업에 대한 의지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다. 다만, 양육에 대한 불안 때문에 적극적으로 재취업에 대해 알아볼 마음을 쉽게 갖지 못하고 있었다.

직장가려고 생각해보면, 3, 4월에 행사가 많으니까. 나만 안가면 엄마들 다 오는데.. 내가 직장 다니면 다 갈 수 없는데..
(2017.07.01. 11번 전업모)

알림장 이야기를 왜 했냐하면요. 그 날은 단톡이 안 올라왔으면 실로폰 못 가져갈 뻔 했어요. 안 갖고 온 아이들은 없는 상태로 수업을 받더라고요.
(2017.07.01. 12번 전업모)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생을 자녀로 둔 취업모와 전업모의 양육불안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모와 전업모의 초등학생 자녀에 대한 양육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 취업모와 전업모는 모두 초등학생 자녀에 대한 과도한 양육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이는 양육불안으로 연결되었다. 현대 사회에서 여성들은 활발히 사회에 진출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녀 양육의 일차적인 책임을 어머니에게 전가하는 경향이 있다[8]. 한편으로, 어머니들은 자녀를 키우면서 어머니가 되는 과정에서 미처 준비되지 못했던 부모 역할을 받아들이면서 어머니라는 막중한 역할에 대해 부담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7]. 본 연구의 결과처럼 취업모와 전업모는 서로 다른 양육불안을 가지고 있는 만큼 각각의 상황에 맞는 방안을 지원하여야 한다.

취업모와 전업모는 모두 시간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바우처 등 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본인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취업모는 자녀의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직접적인 양육을 할 수 없음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고, 전업모는 양육을 전담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저출산 시대에 양육은 더 이상 가정의 몫으로 전가할 수만은 없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줄 정책적 지

원을 제공해야 한다.

둘째, 초등학생 자녀를 둔 취업모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연구 결과 취업모들은 부족한 정보 속에서 최선을 다해 양육하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상당한 양육불안을 경험하고 있었다. 어린 자녀를 키우는 취업모들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긍정적 효과가 낮게 나타난다[10]. 취업모들의 양육불안은 일-가족 갈등을 양산시켜, 취업모들의 이직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취업모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들을 모색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취업모들의 양육불안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 연구 결과, 취업모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보낼 때보다 시간의 부족함과 공부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 해결책으로 자녀들을 학원에 많이 보내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데, 방과후 돌봄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과 같은 방안으로 지원해야 한다.

셋째, 초등학생 자녀를 둔 전업모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연구 결과 전업모들은 좋은 양육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는 죄책감과 더불어 양육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많은 전업모들이 출산으로 인해 경력단절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경력단절의 유무를 떠나서 본인에게 중요한 사회적 지지를 보내주던 직장동료와 친구들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의미하고 있어 전업모들의 소통 통로를 더욱 더 축소시키는 결과로 나타난다[7]. 전업모들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재취업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전업모들은 자녀양육에 시간을 사용하기 위해 풀타임으로 근무하기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다양한 형태의 시간제 근무를 제공하는 것도 전업모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자녀 양육을 온전히 전업모들의 일로 전담시키지 말고, 이를 분담할 필요가 있다. 아빠들을 육아에 참여시키는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해보고, 독박육아의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

References

[1] J.H. We., Development of Parenting Anxiety Scale and its Validation Study, Sungshin Woman's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2014.

[2] S.N. Lee, J.W. Lee., The Development of a Measuring Instrument for Parenting Anxiety in Mothers of Children in Early childhood Stage,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37, No. 4, p297-325, 2017.

[3] G.S. Ginsburg,, R.L. Grover, & J.J. Cord., Observational measures of parenting in anxious and nonanxious mothers: Does type of task matter?.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Vol. 35, p323-328, 2006.

[4] K.A. Shin., Paradigm shift in women's policy, The conditions and changes, Korea Women's Policy Institute Research Report, Vol. 8, 2014.

[5] K. Byron., A meta-analytic review of work-family conflict and its antece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 67, No. 2, p169-198, 2005.

[6] R. Barnett, N.L. Marshall, & A. Sayer., Positive-spillover effects from job to home: A closer look. Women & Health, Vol. 19, No. 2, p13-41, 1992.

[7] S.M. Bae, A study on the experience and adaptation of parenting alone by full-time parenting mothers with first child in the toddler period: based on the grounded theory, Suwon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2014.

[8] J.W. Sung., Mother's parenting guilt related variables: Depending on the mother's employment status and the child's developmental stage, Ewha Womans University Master Thesis, 2011.

[9] H.R. Jeong, The Mediating Effect of Maternal Gate-closing on relationships among Intensive Parenting Attitudes, Neuroticism, and Parenting Stress: A Comparison of Full-time Mothers and Working Mothers, Ewha Womans University Master Thesis, 2018.

[10] P.D. Cleary, D. Mechanic., Sex differences in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married peopl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Vol. 24, No. 2, p111-121, 1983.